

뮤지컬

광주



네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광주'의 첫 공연이 16일 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졌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네번째 시즌 뮤지컬 '광주', 16일 감동의 첫 공연
청소년 등 젊은세대 관람 눈길...21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특정세대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이자 유산 보여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전남도청 집압이 압박한 시간. 도청을 사수하기 위한 시민군들의 투쟁과 결의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여성의 울먹인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애절하면서도 아프다. 죽음을 예감한 시민군들의 모습은 비장하다. 그러나 처연함을 못내 떨칠 수는 없다.

뮤지컬 '광주'를 보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대가를 생각했다. 대가라는 말은 너무 가볍다. 피값이라 해야 옳을 것 같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고전적인 명제가 뼈저리게 다가온다.

'피'와 '홍'의 대결. 그러나 의로운 생명의 피는 결국 무도한 권력을 이긴다.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그 역사의 '최일선'에 5·18광주민중항쟁이 자리한다.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뮤지컬 '광주'의 첫 공연이 16일 밤 성황리에 펼쳐졌다.

'5월의 광주'를, 민주주의의 상징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풀어낸 작품은 왜 '아시아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찬사가 뒤따르는지를 보여주었다.

공연이 펼쳐진 빛고을시민문화관 2, 3층 공연장

은 만석을 이룰 만큼 빈 자리 하나 없이 뿔뿔이 들 어졌다. 특히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대학생 등 청소년 과 젊은층이 대거 공연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자연스레 광주 5·18이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

니라 시민 모두의 역사이자 유산임을 명징하게 증명했다.

작품은 음악과 서사, 출연진들 연기가 잘 어우러진 하나의 앙상블을 보고 듣는 느낌이었다. 허구와

실재가 절묘하게 교직돼 사실감을 높이면서도 상상력의 여지를 주었던 것.

특히 이번 시즌에는 역대 배우들이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이건 역에 초연 무대에 섰던 김찬호, 아학교사인 문수경 역에 효은과 최지혜가 이름을 올렸으며 특무대장으로 편의대원을 지휘했던 허인규 역에 박시열 등이 합류해 열연을 했다.

작품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소시민들의 투쟁을 그렸다. 영웅의 서사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을 부각시켜 각각의 배역에 나름의 서사를 부여했다. '광주'가 지리적인, 공간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리고 있는 지구촌의 많은 도시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이유다.

특히 서사의 갈등구조가 선명하지만 이를 풀어내는 방식은 이분법적이지 않다. 계엄군과 맞서 싸우는 아학교사 윤이건과 505부대 편의대원 박한수의 갈등과 인간적인 연민, 최후의 항전까지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황사음악사 주인 정화인의 모습 등은 적잖은 생각거리를 준다.

시대가 만든 비극이지만 결코 그 시대만을 탓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젊은이들 모습은

오늘의 기성세대가 잊고 있던 '진실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감명 깊다.

특히 시위와 아학을 병행하는 아학교사 문수경과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천주교 사제, 풍류를 맡아 인간에 대한 통찰을 지닌 거리 천사 등은 불의한 시대, 폭압의 시대에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의 마지막에 새겨진 말은 오래도록 여운을 준다.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되게 행하는 자, 진실 속에 영원히 머문다." 뮤지컬 '광주'의 지향점은 바로 진실이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뮤지컬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문화재단의 '2019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난 2020년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초연무대를 펼쳤으며 이후 2021년 LG아트센터에서 재연 무대를 선보이며 '아시아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남은 공연은 오는 21일까지(목 오후 2시, 금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2시,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광주문화재단, 소은컴퍼니.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담아 힘차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출연진들.

광주독립영화관서 만나는 5월 청년들과 감춰진 이야기

영화 '제비' '송암동' 상영
26일 이송희일 감독과 대화도

'녹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젊은 청춘들을 강제 징집시킨 때가 있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지난 81~83년 사이 불온하다고 낙인찍은 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켜 특별 교육을 받게 했던 사건이다. 악명 높았던 녹화사업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깨지고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다.

때는 83년,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있다. 동지이자 연인이었던 '제비'와 '은숙', 그리고 은숙을 사랑했지만 그로 인해 '프락치'가 될 수밖에 없던 한 사람이 있다.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은숙의 아들 '호연'은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게된다. 호연은 어머니세대의 사랑과 꿈 그리고 감춰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어나가는데...

영화 '제비'는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5·18 43주년을 맞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5·18 작품가



'제비'

운데 하나다. 또한 19일 오후 7시에는 80년 5월 당시 학살을 소재로 한 영화 '송암동'이 상영된다.

오는 26일에는 '제비'의 이송희일 감독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민철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감독과의 대화는 작품 제작 배경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이번 행사에 이어 5·18이 남긴 민주주의와 예술의 동시대적 의미를 모색하는

'VOTE, VIDEO에 투표하라!' 기획전을 11월까지 매일 1회씩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관계자는 "이에 앞서 5·18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광주로 오는 청년들과 '외롭고 높고 쓸쓸한' 상영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며 "이번 상영회와 행사 등을 통해 5·18에 담긴 민주주의와 광주의 정신을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18을 맞아 전시중인 오래된 주걱들.

(비움박물관 제공)

'별이 된 자들을 위하여'

비움박물관, 트라우마센터와 5·18 특별기획전...20일까지

5월 18일은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세계 박물관의 날'이기도 하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두루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움박물관이 5·18 특별기획 '별이 된 자들을 위하여'전을 20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전시를 기획해 의미를 더한다.

주요 작품은 광주트라우마센터 회원들이 작업한 작품 10여 점을 비롯해 비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닳고 닳은 오래된 주걱들 200여 점, 가마솥, 대나무평상, 상 등이다. 별이 된 자들의 기록과 다양한 사진 등을 통해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 주걱들에선 우리 조상들의 '밥'을 모티브로 한 공동체 정신, 생명의 정신 등을 엿볼 수 있으며 트라우마센터의 작품은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트라우마센터의 작품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다. 이영화관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시민들이 권력을 찬탈한 군부에 맞서 목숨 걸고 지켜낸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기록과 사진, 작품 등을 통해 볼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트라우마센터와 공동 기획을 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오월주간 '오월의 광주를 기록하다' 프로그램 운영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2023년 5월 광주.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월의 5일을 상징으로 담은 프로그램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월문화주간(18~27)을 맞아 '오월의 광주를 기록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은 시민이 직접 오월의 광주를 연차별로 기록하고 공

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ACC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5월의 기록이 콘텐츠로 제작되는 의미있는 경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CC는 시민에게 선착순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배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ACC방문자센터에서 받아 오늘의 5월을 담아내면 된다. 대상은 ACC, 광주, 우리 등 다양한 소재를 직접 촬영 후 카메라는 반납하

면 된다. 행사는 일회용 카메라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ACC 관계자는 "활영한 사진은 현상, 인화를 거쳐 참가자에게 제공한다"며 "사진은 ACC 콘텐츠로 기록하고 보관돼 전시와 온라인 등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촬영 후 일회용 카메라를 ACC방문자센터에 반납하거나 우편이나 택배로 선불 발송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